God's People Krung, Brao in Ratankiri Cambodia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라따나끼리 전대식 황영미선교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동역자님과 함께 힘을 모아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단기팀을 맞으러 라따나끼리를 출발하여 씨엠립으로 향한지 10분이 지났을 때, 빗쩽(사진에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분)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쑤엇(바로 옆에 흰옷입고 앉아 계신 분) 성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스록(군) 병원에서 300달러 이상을 주고 치료를 했는데 차도가 없다는 간단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 고민 중, 몇 일전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병 낫기를 소망하던 38년 된 병자에게(요5)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병자의 대답은 '예, 아니오'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생뚱맞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병자는 병이 낫고 낫지 않고를 떠나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가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영미선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황선교사는 르언과 사무엘을 품코안에 보내어 쑤엇성도님을 모시고 나오게 하고, 반룽 시내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 치료를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리에 염증이 심해서 먹는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항생제 주사를 하루에 두 번 사흘을 맞으라는 처방을 했고 저희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1,500달러씩 3개월 약을 먹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처방을 받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 밖의 일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단기팀과 함께 사역을 하는 동안 힘들었지만 오전 오후로 열심히 항생제 주사를 맞고 약을 드시게 하면서 몸보신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의사의 예상과는 달리 나흘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틀 더 치료를 받았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쑤엇 성도님. 품코안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의 기억으로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어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고 죽은 아내와 자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나는 죽으면 아내와 자식을 만날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죽어서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울먹이셨습니다. 마을에서 주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가서 축의금만 하고 귀한(?) 잔치상을 뒤로 하고 예배를 드리던 분입니다. 어느 주일날은 조카가 죽어서 지금 묻고 오는 길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 너무 슬퍼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재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두 명의 여자가 있는데 어느 여자가 좋은지 선택(?)해 달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서툰 크마에와 저희의 어눌한 크마에 실력으로 인해 서로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애정이 가던 분입니다.

치료 도중에 이분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곳에. 힘들게 전화번호를 구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그냥 우리를 믿는다고만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만나자고 했더니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다 치료 받았지만 차도는 없었고, 단기팀으로 왔던 의사선생님도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선교사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 자녀가 돌보게 해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쑤엇 성도님을 모시고 가서, 자녀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와 함께 병원 영수증(우리가 할 만큼 했다는 증거(?))과 약을 드리고 집으로 돌려 보내드렸습니다.

쑤엇 성도님은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모시고 갔습니다. 돌아가는 그 분을 보면서 마음 한 구석이 저며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무표정의 아들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희의 마음 한 구석에 염려가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했는데 지금 저 분의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쑤엇 성도님이 병이 낫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과 원망으로 교회에 대해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지? 완치될 때까지 도와드렸어야 했나? 병원 치료를 멈추게 되면 예전의 방식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데...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의 방식이란 민간치료요법과 함께 샤머니즘의 주술적 방법을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무당은 주술을 행하기 전에 다른 신(교회)을 버려야 한다고 권합니다. 그리고 병세가 조금 좋아지면 이들은 예수를 버리고 원래의 샤머니즘 신앙으로 되돌아갑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은 아이가 있었는데, 병고침을 받은 아이의 부모님은 이것이 우상에게 미안해서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하고 아예 교회에 등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던 성도님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 심방을 가면, 일가친척 중에 아픈 분이 주술적 방법으로 병고침을 받고 무당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해서 이제는 교회를 끊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권면하고 돌아서 나오면서 '나는 오늘 마귀에게 졌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쑤엇 성도님이 다시 스록(군)병원에 가셨다는 말을 듣고 심방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퇴원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집을 방문하였지만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집에 가신 것 같은데 교회 성도님 중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전화했던 빗쨍 성도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도 전화가 안 됩니다. 어디에 계신 걸까? 병세는 호전되셨을까?

우리가 그분을 고아와 같이 사막에 버리고 온 것은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잘 돌보라고 맡기신 주님의 양을 다시 사탄에게 빼앗겼단 말인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지금 생각해 보니 이런 저런 일을 핑계로 쑤엇성도님의 아픔 몸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무엇이 최우선이고 최선인지를 망각하면서 삽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미련하고 둔한 이 영혼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주님께서 쑤엇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아 옛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길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품코안교회는 주변 지역(품파남, 품까삐어, 품꺼뽕) 일대에 복음의 전진기지입니다. 사탄도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싸움을 준비하게 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온 지역에 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역을 행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지혜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최우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역자님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